



남부안농협,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 나서

남부안농협(조합장 최우식)은 지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가며, 안정적인 농업 인력 공급에 나섰다.

남부안농협은 지난해 처음으로 해당 사업을 도입해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으며, 2025년 사업에도 총 50명의 계절근로자가 선발되어 1차로 19명, 2차로 31명이 4월에 추가 입국해 본격적인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선는 것.

올해는 한층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특히 농업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1주일 전에 필요 인원, 성별, 기간, 작업 내용 등을 남부안농협 본점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1차로 입국한 19명의 계절근로자들은 미약감사 및 사전교육을 마친 후 농가에 배치, 지역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농협, 조합원 자녀 중고생에 희망 장학금 전달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농촌 취약계층의 농업인 조합원 자녀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농촌 희망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농촌 희망 장학금은 농촌지역사회 유지와 발전과 차세대 리더 양성, 농업인 가정의 교육비 경감을 통한 안정적인 농촌 정착 독려를 위해 농협재단의 후원으로 지급 이번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12명에게는 총 38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박기열 조합장은 "장학생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의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심상생생 건강교실 24일부터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경로당 건강관리 사업인 '심상생생 건강교실' 사업을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연중 운영한다.

올해 교실은 88개소 경로당에서 운영하며, 30명의 노인전문 체조강사를 선발해 마을에서 원하는 시간대와 지역 특색에 맞는 강사를 배치한다.

운영은 체조 강사가 경로당을 주 2회 방문해 1시간씩 흥겹고 신나는 음악에 △가벼운 몸풀기 △스트레칭 △낙상사고 예방 △면역증강을 위한 근력 강화 체조를 진행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 홍보 캠페인'

남원시가 기부문화로 정착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관내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에 나섰다.

남원시는 최근 지역 농축협, 전북은행 등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혜택을 설명하고, 기부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기관별 협력을 요청했으며, 특히, 기부금의 사용처와 지역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으며,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주요 공단 및 남원경찰서, 남원소방서 등 공공기관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남원시 고향사랑기부제 문의는 063-620-6087)

김은영 행정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취임식

12개 여성단체 회장 등 50여명 참석... 여성단체의 발전 방향·권의 향상 다짐

남원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은진)는 지난 21일, 남원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12개 여성단체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임 인영희 회장에 대한 감사와 신임 회장 축하의 시간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남원시 여성단체의 발전 방향과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다짐이 이어졌다.

전임 인영희 회장은 14대~15대 회장을 역임, 4년간 여성단체협의회를 이끌며 양성평등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양성평등 교육과 여성 안전망 구축 등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신임 16대 이은진 회장은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만든다."라며 여성단체간 상호협력과 결속을 강조하며, 남원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남원읍을 여성친화 으뜸 도시



시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미옥 여성가족과장은 새로 취임한 이은진 회장과 임원진들을 축하하며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남원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해줬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전북소방, 지역안전지킴이 공로 인정 의용소방대원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김태열 김제 금산·박관우 진안 동향·국무총리 표창-송영자 장수 계남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난 20일 제4주년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희생봉사정신을 널리 알린 의용소방대원 3명에 대한 정부포상 수여식을 진행했다.

포상 대상자는 △대통령 표창에 김태열 김제소방서 금산남성의용소방대장, 박관우 진안소방서 동향남성의용소방대장 △국무총리 표창에 송영자 장수소방서 계남여성의용소방대장이다.

수상자들은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선정됐다.

김태열 대장은 1993년부터 30여년 동안 의용소방대원으로 지역내 화재 등 재난대응 활동 및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특히 2023년 7월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김제시 피해 농가에 대해 수해복구 3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재난 복구활동의 최선을 다한 공로가 인정되었으며,

한편, 박관우 대장은 31여년 동안 관내 재난취약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소화기 설치 등 주택 안전점검을 통한 화재에



방 활동과 특히 2023년도 세계잡배대회 당시 안전 예방 활동 및 환경 정화 운동을 실천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지원활동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의 영광을 안았다.

수상자들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아 영광이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내 고장 안전지킴이로서 도민의 안전과 의용소방대의 발전을 위해 항상 최일선에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원봉사센터, 진안군서 '착한 한끼 나눔' 행사 진행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와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재동), 전문봉사자 100여명과 함께 20일, 미령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어르신 300여명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나눔활동을 펼쳤다.

본 행사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단절방지 및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푸드봉사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으로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첫 번째로 진안군에서 온기나눔을 실천하였다.

이번 활동은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물러가는 추위와 한겨울 속에 어르신들 면역력 증진을 위한 수육, 다슬기 국 등의 건강식과 핸드 드림커피, 손거울 만들기, 미용, 진땀나눔, 업사이클링 키링 만들기 등 든든한 간식과 함께 제공하며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자원봉사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했다.

또한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이재동 이사장)는 "오늘과



같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나눔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으로 한끼가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최대철 배우, 무주군에 100만원 고향사랑기부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에서 오천수(둘째) 역으로 출연 중인 최대철 배우가 21일 무주군청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최대철 배우는 무주군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포레(배도라 지주, 홍삼 천마제품 등 건강식품 생산업체)의 광고 모델로 활약하며 무주와 인연을 맺었으며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무주군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기원했다.

황인훈 군수는 "진숙한 이미지와 깊이 있는 연기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최대철 배우가 무주에 고향사랑의 마음을 표해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온전히 지역과 주민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와 기금사업 발굴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교육지원청, 행정실장 청렴서약 투명 행정 다짐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지난 21일 관내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열리는 협의회에서 청렴 서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서약식은 행정 실장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다짐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행정의 청렴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다.

청렴 서약식은 이번 협의회와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로, 모든 참석자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한다. 이를 통해 부패 방지 및 공정한 업무 처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교육 분야에서 청렴한 조직 문화를 확립할 것이다.

추 교육장은 "청렴은 교육 행정의 근본적인 가치이며, 행정 실장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만 교육 현장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약식을 통해 행정실장들은 청렴한 업무 환경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조직 내에서의 부패 예방과 투명성 증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것이다. 또한, 청렴 의식이 확산되면, 지역사회와 교육 현장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 필요한 가정과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군산 농어촌공,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 지역발전 기여

군산시(시장 김임준)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지사장 서기수)에서 지사장을 포함한 직원 30명이 고향사랑기부제로 군산시에 300만원을 기부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군산지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기부하며 2년간 총 600만원을 군산시에 기탁했다.

이외에도 △식량인프라조성사업 △친환경 용수관리사업 △농어촌공간개발사업 △농자은행사업 등을 수행하며 지역의 농어업, 농어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은 "이번 기부가 군산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농어촌의 성장과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임준 군산시장도 "2년간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님과 직원분들이 군산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부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어촌공사와 군산시가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군산=이재춘기자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임직원들이 지난 21일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전달식은 무주군 소이나무 공원 현장에서 진행된 '2025 전국장애인사이클선수권 대회' 시총식에서 개최됐으며, 황인훈 무주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해 의미를 더했다.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이광현 회장은 "무주군의 지속적인 지원과 애정어린 관심 덕분에 매년 전국장애인사이클선수권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되고 있다"라며 "이에 임직원들이 감사함을 담아 정성을 모으게 전달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기부금이 무주가 발전하고 군민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는데 요긴하게 쓰이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5 전국장애인사이클선수권대회는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관한 가운데 21일과 22일 양일간 무주군 무주읍 대치리 일원에서 개최되며, 지역장애인 선수 등 150여 명이 소이나무 공원을 출발, 강변도로와 대치리 원형교차로, 차차마을을 거쳐 다시 소이나무공원으로 돌아오는 5.3km 구간을 달리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